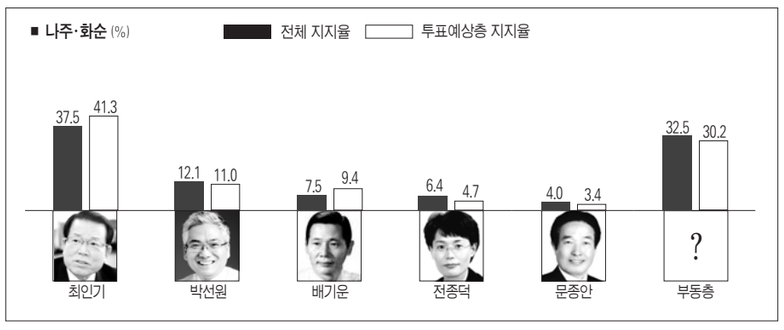
구곡담 국창근·고현석·이개호 오차범위 내 3파전

〈구례·곡성·담양〉

나주·화순

최인기 독주 속 박선원·배기운 단일화 변수



3선을 노리는 현역 최인기 의원의 독주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후보 중 국회의원 적합도를 묻는 질문에서 최 의원이 37.5%의 압도적 지지율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참여정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 출신인 박선원 예비후보가 12.1%, 한국보훈복지공단이사장과 국회의원을 지낸 배기운 예비후보 7.5%, 통합진보당 소속인 전종덕 전 전남도의원 6.4%, 새누리당 소속인 문종안 전 광주시교육청 교육장이 4.0%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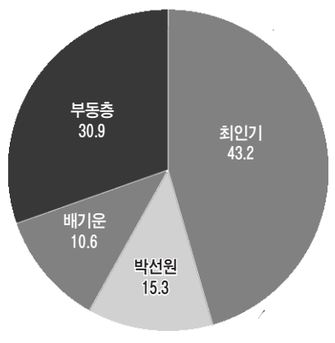
민주통합당 경선 지지율의 경우에도 최 의원은 43.2%의 지지율로 다른 후보를 2배 이상의 격차로 따돌렸다. 박 전 비서관은 15.3%, 배 전 이사장은 10.6%의 지지율을 보였다.

이는 지난달 광주일보 여론조사에서 최 의원과 박 전 비서관 간에 48.3%대 34.9% 지지율을 기록한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당시에는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아 여론조사에서 빠진 배 전 이사장이 박 전 비서관의 지지층을 양분해 간 반면 최 의원의 지지층은 굳건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화순 출신인 문 전 교육장과 전 전 도의원이 민주통합당 소속이 아니어서 화순 유권자들이 경선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화순군에서는 최 의원이 36.7%, 박 전 비서관 16.8%, 배 전 이사장은 13.8%의 지지율을 기록, 격차가 조금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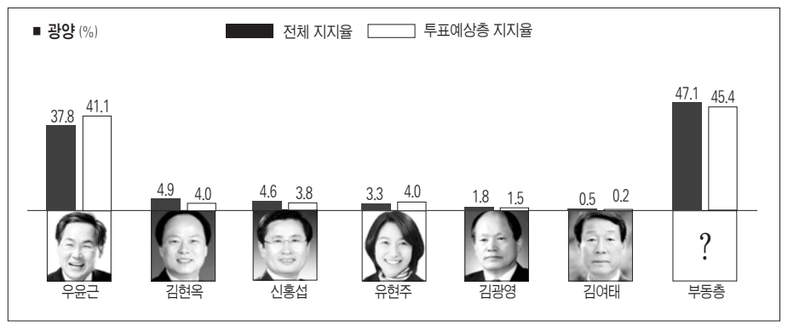
박 전 비서관과 배 전 이사장은 단일화를 예고한 상태여서 민주당 경선의 마지막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통합당 국민경선 지지도(%)



광양

우윤근 부동의 1위… 부동층도 절반이나



광양에선 3선에 도전하는 민주통합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인 우윤근 예비후보의 독주가 뚜렷하다.

우 의원이 37.8%의 지지율로 굳건한 1위를 차지한 반면 김현옥 전 광양시장이 4.9%, 신홍섭 전 전남도의원이 4.6%, 유현주 전 전남도의원이 3.3%, 김광영 전 공군사관학교 정치학 교수가 1.8%, 새누리당 소속인 김여태 전 육군장군이 0.5%를 각각 기록했다.

우 의원은 20대 이하에서 42.6%, 1선거구(광양읍·봉강면·옥룡면)에서 43.3%, 투표예상층에서 41.1%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도를 보였다.

반면 무소속인 김현옥·신홍섭·김광영 예비후보는 10% 내외의 지지율을 보였던 지난달 광주일보 여론조사보다 때 보다 부진했다.

통합진보당 소속의 유현주 예비후보는 신시가지인 제2선거구(중마동·골약동)에서 5.5%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보였으나 농촌지역이 많은 제 3선거구에서는 1.7%의 지지율에 머물렀다.

민주통합당 경선을 가정했을 때도 우윤근 의원은 52.2% 지지율로 8.6%에 그친 신홍섭 전 전남도의원을 압도했다. 우 의원은 20대 이하에서 63.3%로 50대 이상(48.4%)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하지만, 신 전 도의원이 민주통합당에 공천 신청을 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경로를 바꿈에 따라 우 의원이 민주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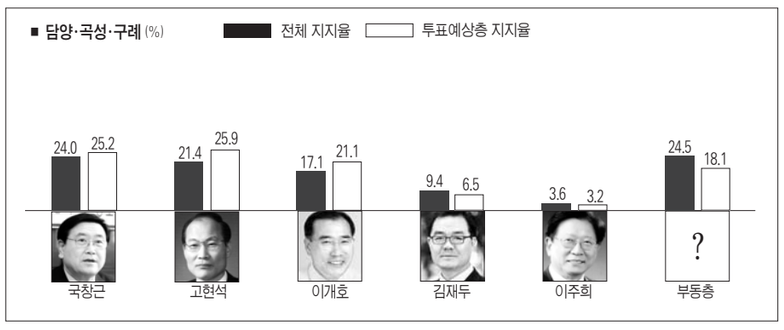
부동층이 전남에서는 가장 많은 47.1%나 돼 향후 선거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담양·곡성·구례

투표예상층 지지도선 1·2위 뒤바뀌어



15대 국회의원을 지낸 국창근, 민선 곡성군수를 지낸 고현석, 전남도 행정부지사 출신의 이개호 예비후보 간 3파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후보 간 국회의원 적합도 조사에서 국 전 의원은 24.0%, 고 전 군수는 21.4%, 이 전 부지사는 17.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3명의 예비후보의 지지도 격차는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내다.

이어 선거구 통폐합 저지를 위해 단식을 했던 김재두 전 국민의정부 행정관이 9.4%, 이주희 전 행안부 지방행정연수원 교수가 3.6%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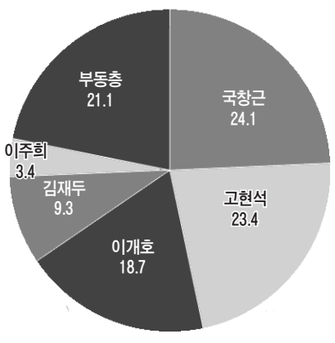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투표 예상층의 지지도에서는 고 전 군수가 25.9%, 국 전 의원이 25.2%로 순위가 바뀌었다.

5명의 후보 모두 민주통합당 소속이어서 당내 경선을 가정한 지지도 조사 결과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왔다.

국 전 의원은 24.1%, 고 전 군수는 23.4%, 이 전 부지사는 18.7%, 김 전 행정관 9.3%, 이 전 교수 3.4%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반면 투표 예상층에서는 고 전 군수가 27.7%, 국 전 의원이 24.2%, 이 전 부지사가 23.8%로 순위가 바뀐 상태에서 치열한 접전을 펼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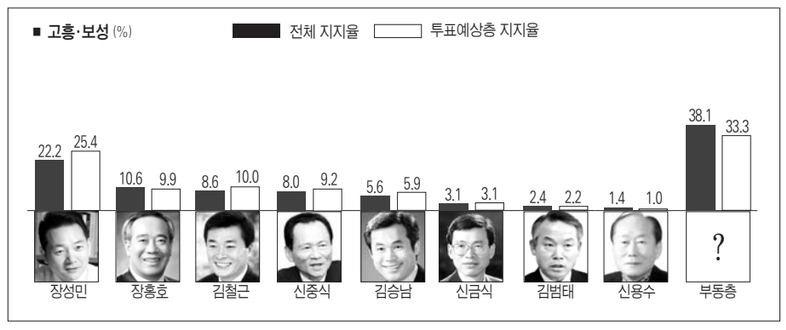
이 지역 최연소(44세)인 김 전 행정관은 20대 이하에서 22.5%, 50대 초반인 이 전 부지사는 30대에서 25.9%로 각각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고향에서의 높은 지지도도 눈에 띈다. 고 전 군수는 곡성에서 52.5%, 국 전 의원은 담양에서 34.8%를 기록했다.

민주통합당 국민경선 지지도(%)



고흥·보성

박상천 빈자리 장성민 차지… 타 후보와 격차 벌려



현역인 박상천 국회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선거구도가 재편되면서 후보들의 지지율이 1강 3중 4약으로 나타났다.

전체 후보를 대상으로 한 적합도 조사에서는 장성민 전 김대중정부 국정상황실장이 22.2% 지지율로 1위를 차지했다.

장홍호 전 김대중정부 청와대 행정관(10.6%), 김철근 민주통합당 정책위 부의장(8.6%), 신중식 전 국회의원(8.0%)이 선두를 추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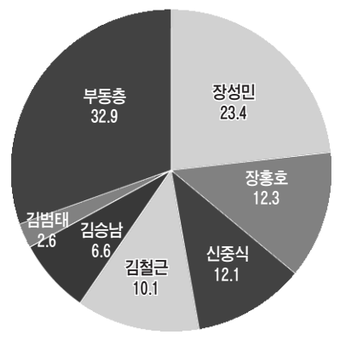
전남대총학생회장 출신인 김승남 예비후보는 5.6%, 무소속인 신금식 전 고흥타임즈 발행인이 3.1%, 김범태 득량만환경보존회 회장이 2.4%, 새누리당 소속인 신용수 전 단국대 경상대학장이 1.4%의 지지율로 하위권을 형성했다.

민주통합당 경선 지지율에서도 1강 3중 구도는 유지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 전 국정상황실장이 23.4%로 선두를 지킨 가운데 장 전 행정관이 12.3%, 신중식 전 의원 12.1%, 김철근 부의장은 10.1%의 지지율을 보였다. 김승남 예비후보는 6.6%, 김범태 회장은 2.6%에 머물렀다.

연령대와 지역에 상관없이 장 전 국정상황실장이 강세를 유지한 가운데 20대 이하에서는 43세로 최연소 후보인 김철근 부의장이 13.0%의 지지율로 1위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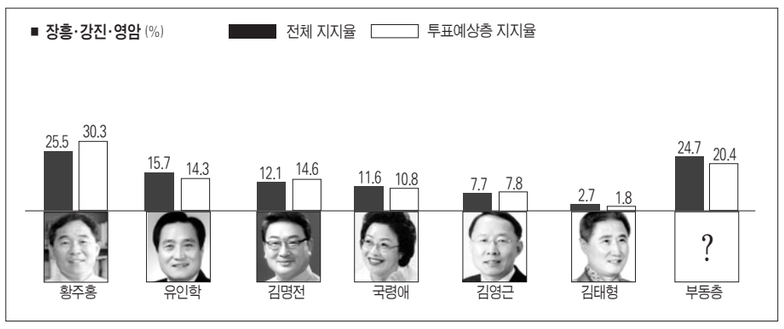
고흥에서는 신 전 의원이 13.5%, 보성에서는 장 전 행정관이 15.3%로 2위를 차지하는 등 지역에 따라 중위권 구도가 달라졌다. 이와 함께 신 전 의원은 투표예상층에서 14.4%의 지지율로 1위인 장 전 국정상황실장(24.9%)과 격차를 다소 줄였다.

민주통합당 국민경선 지지도(%)



장흥·강진·영암

황주홍 지지율 주춤, 중위권 후보들 약진



3선의 현역 유선호 국회의원이 서울 출마를 선언, 무주공산이 된 이 지역에는 3선 강진군수를 지낸 황주홍 예비후보가 25.5%의 지지율로 가장 앞서고 있는 가운데 13~14대 국회의원을 지낸 유인학 예비후보가 15.7%, EBS 한국교육방송공사 부사장 출신인 김명전 예비후보가 12.1%, 국령애 민주통합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이 11.6%의 지지율로 바짝 추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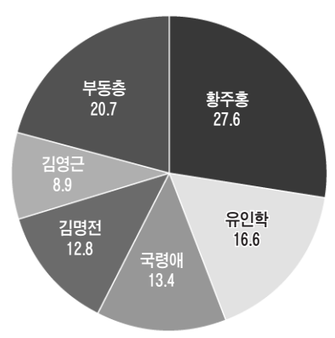
뒤늦게 선거전에 뛰어들어 인지도가 낮았으나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김영근 전 한국경제신문 전 정치부장이 7.7%, 전남도 공무원 출신의 김태형 예비후보가 2.7%로 뒤를 이었다. 한달 전 조사에 비해 황 전 군수의 지지율이 다소 빠진 반면, 다른 중위권 후보들의 약진이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예비후보로 등록한 통합진보당 소속의 박형기 한미 FTA 전면 폐기 장흥군연석회의 상임대표는 여론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민주통합당 경선을 가정할 경우에도 황 전 군수는 27.6%의 지지율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유 전 의원이 16.6%로 2위를, 국 부위원장은 13.4%의 지지율로 12.8%를 기록한 김 전 부사장을 제치고 3위에 각각 랭크됐다. 김 전 부장은 8.9%로 두자릿수 지지율을 눈 앞에 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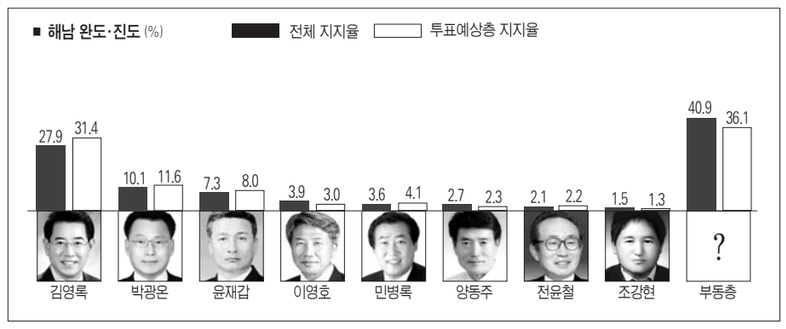
3개 군의 통합 선거구인 만큼 고향에서 강세가 뚜렷했다. 황 전 군수와 국 부위원장은 강진에서 48.9%와 17.3%, 유 전 의원은 영암에서 26.6%, 김 전 사장은 장흥에서 26.7%의 지지율을 기록, 타 후보를 압도했다. 국 부위원장은 40대 연령층에서 20.8%의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통합당 국민경선 지지도(%)



해남·완도·진도

박광온, 선두 김영록 추격… 해남 표심이 승부 가를 듯



현역 국회의원인 김영록 예비후보의 독주 속에 MBC 보도국장 출신인 박광온 예비후보의 추격전이 전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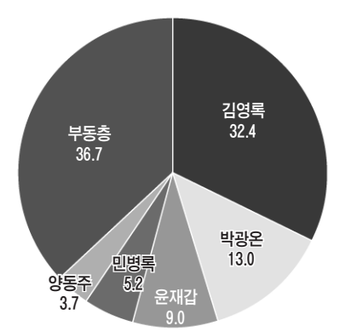
김 의원은 27.9%의 지지율을 얻었고 박 전 국장은 이에 훨씬 못 미치는 10.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어 해군 장성 출신인 윤재갑 예비후보가 7.3%, 17대 국회의원인 이영호 예비후보(무소속)가 3.9%, 경실련 전 중앙위원인 민병록 예비후보가 3.6%, 경희대 교수인 양동주 예비후보가 2.7%, 경제부총리 출신인 전윤철 예비후보(무소속)가 2.1%를 각각 기록했다. 새누리당 후보인 조강현 예비후보는 1.5%에 그쳤다.

민주통합당 경선 지지율 면에서는 김 의원이 32.4%, 박 전 국장 13.0%, 윤 후보 9.0%, 민 후보 5.2%, 양 후보가 3.7%를 각각 기록했다.

변수는 해남군의 지지 변화 여부. 가장 많은 유권자가 있는 해남에서는 박 전 국장의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18.7%를 기록했다. 김 의원의 해남 지지율은 24.1%로 두 후보 간 격차는 5.4%포인트에 불과했다. 이는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4.4%) 내다. 완도 출신인 김 의원을 제외한 4명의 후보가 해남 출신이어서 이들이 단일화할 경우 경선 양상이 바뀔 수도 있다.

또 부동층이 36.7%로 다른 지역보다 많고 특히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진도의 부동층은 44.6%나 돼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김홍철 대아그룹 부회장은 14일에야 무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해 이번 여론조사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민주통합당 국민경선 지지도(%)